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5. 7. 13.(일) 10:00
(지 면) 2025. 7. 14.(월) 조간

민간개방으로 국민과 더 가까워진 모바일 신분증, 민간 혁신 서비스 창출 기대

-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4개 참여기업(신한은행, 우리은행, 중소기업은행, 하나은행) 선정
- 다양한 민간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창의적 서비스 창출 전망

- 행정안전부는 7월 13일(일),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신한은행, 우리은행, 중소기업은행, 하나은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.
- 이번에 4개 기업이 선정되어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 정부 앱과 총 10개 민간 앱*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·사용할 수 있게 된다.
 - * (1차 참여기업)삼성전자('24.3월부터 서비스 중), (2차 참여기업)국민은행, 네이버, 농협은행, 비바리퍼블리카(토스), 카카오뱅크('25.7월 말부터 서비스 예정)
- 2025년 민간개방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모집 공모는 지난 6월 9일(월)부터 7월 4일(금)까지 진행됐으며, 모바일 신분증에 관심을 가진 많은 기업이 해당 공모에 참여했다.
- 보안 및 인증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▲보안 수준, ▲개인정보 보호 방안, ▲신뢰성, ▲장애 대응체계, ▲활성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위 4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.
- 이번에 선정된 참여기업은 올해 7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내년 1분기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, 2분기까지 평가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통과하면 7월부터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.
- 적합성 평가에서는 ▲모바일 신분증 필수 기능 구현 여부, ▲앱 위·변조 및 탈취에 대한 보안성 확보 여부, ▲신분증 발급·이용 시 수행하는 안면인식 기능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, 참여기업이 모바일 신분증을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보안성과 안정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한다.

《 2025~2026년 모바일 신분증 추가 민간개방 추진일정(안) 》

2025년						2026년						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
구축									적합성 평가		개통	

- 4개 참여기업은 신분증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어떤 서비스보다도 높은 보안 수준을 제공할겠다는 각오로 전사적 차원의 지원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.
-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“정부가 구축한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위에 민간의 창의적인 혁신 서비스가 더해지면서, 모바일 신분증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 민관협업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”이라며,
 - “신분증은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국가가 공인하는 수단인 만큼, 모바일 신분증 역시 최고 수준의 보안을 갖춰 국민이 믿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보안정책과	책임자	과 장	조원갑 (044-205-2741)
		담당자	사무관	김영범 (044-205-2757)

